

# “1980년대 음악여행 우리과 함께 떠나요”

10일 서울 마포문화재단 '어떤가요' 합동 콘서트

전영록, 7080 다수 히트곡·배우 맹활약  
“그땐 그랬지 하며 시간여행 떠났으면”  
민해경, 발라드·댄스 등 장르 불문 인기  
“꾸며지지 않은 실력이 1980년대 매력”

“우리는 1980년대 생(生) ‘날 것’의 시대를 보냈어요. 오토티온(불안한 음정을 보정해주는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화장도 대기실에서 셀프로 했는데요.” (민해경)

한국 대중음악이 꽃피운 1980년대, 총천연색 스포트라이트 아래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쓰고 열창하는 한 청춘스타가 있었다. ‘볼티’나 ‘종이학’ 같은 히트곡이 나오면 TV 앞에 모여 앉은 전국의 소녀 팬들은 환호했다.

비슷한 시기 1980년대 TV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댄스 장르를 선도하는 디바도 등장했다. 도회적이고 세련된 외모는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탄탄한 노래 실력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바로 당대 큰 인기를 누리고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전영록과 민해경이다. 이들은 10일 마포문화재단 주최 신년맞이 콘서트 ‘어떤가요’에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영록은 “우리는 과거 생으로 라이브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해서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나는 지금도 인이어(귀에 삽입하는 이어폰)를 끼는 것을 싫어한다. 객석 반응도 들어야 하는데 혼자 인이어를 껐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해경 역시 “꾸며지지 않은 데에서 나오는 신선함과 실력이 1980년대의 매력”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래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다. 요즘 같은 (성능 좋은) 마이크로는 천 곡도 부를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전영록은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에서 연기자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 ‘편지’를 부른 것을 계기로 가요계에도 발을 내디딘 후 1975년 1집 ‘나그네 길’을 시작으로 ‘볼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애심’, ‘종이학’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그는 “1980년대에는 내가 부를 노래도 방송국이 정해주곤 했다”고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를 소개하고서 음악적 변화가 만들어진 흥미로운 계기를 들려줬다.

아울러 민해경은 1980년 TBC 세계가요제로 데뷔해 이듬해 발표한 2집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히트하며 인기 가수가 됐다. 초창기 발라드를 주로 부른 그는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등 댄스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민해경은 “오랜 세월 활동하려면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되겠더라. 변신이 필요했다”며 “높은 구두를 신고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밤새 춤을 연습했다.”

두 사람은 이번 ‘어떤가요’ 공연에서 ‘나를 잊지 말아요’ (전영록)와 ‘약속은 바람처럼’ (민해경)을 듀엣으로 부른다. 이 가운데 ‘약속은 바람처럼’은 전영록이 작사·작곡해 민해경이 불렀다는 인연도 있다.

“MSG 같은 가수가 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제가 앞장서기보다 후배들의 길라잡이 나 뒷배가 되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이 ‘맞아, 그땐 그랬지’ 하며 과거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록) /연합뉴스



## 이정재 “중간 채점 받는 기분” ‘오징어게임2’... “성기훈은 양심 상징”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은 비장한 목표를 품고 행동하지만 허점이 많고, 정의감에 불타오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기적인 면모를 보인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하는 행동이 답답하다 보니 시청자들의 응원보다 욕을 더 많이 먹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이정재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인상 깊은 반응은 아무래도 욕평”이라고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중간 채점 결과를 받는 느낌이라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 변명하거나, 작품 의도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시즌3이 공개되면 많은 분의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성기훈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습은 골극의 일부일 뿐”이라며 “바닥의 바닥까지 찍은 성기훈이 이제 어떻게 변화해서 다시 치고 올라갈지 기대해달라”고 귀띔했다.

지난 시즌에서 다소 절망적 순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성기훈은 시즌2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에서 최종 우승해 상금 456억원을 얻었지만 페인처럼 웃음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떠나려고 하지만 끝내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다. 결국 직접 게임을 끝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참가자로 게임에 뛰어들기까지 한다.

맹목적인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성기훈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이정재는 시즌1의 결말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시즌1 후반부에서 보여줬던 빨간 머리 성기훈의 모습을 토대로 시즌2의 성기훈을 발전시켰다”며 “게임이 끝난 뒤의 성기훈은 이미 그 전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고 짚었다.

성기훈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시즌2의 진짜 빌런’이란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답답한 구석이 분명한 캐릭터지만, 이정재는 “답답한 구석도 있지만, 세상에 성기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기훈을 떠올리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며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것인데, 성기훈처럼 양심에 거슬리는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결국 양심이 가리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요즘 사회에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다음 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이정재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큰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오징어 게임’은 제 인생 작품이고, 성기훈은 제 인생 캐릭터”라고 애정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영화 ‘헌트’ (2022)의 제작과 연출을 맡아 감독으로도 데뷔한 이정재는 현재 새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 BTS 제이홉 “올해 많은 것 보여드릴게요”

팬 플랫폼 위버스에 새해 인사...올해 멤버 전원 군 복무 마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많은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제이홉은 5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25년은 모두가 활짝 만개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며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이 25년이 주는 자연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좀 더 성숙하고 저에게 어울리는, 모두의 만족을 위한 플랜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제이홉은 지난해 6월 전역한 만형 진에 이어 팀에서는 두 번째로 같은 해 10월 전역했다. RM, 뷔, 지민, 정국, 슈가 나머지 다섯 멤버는 올해 6월 전역 또는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제이홉은 “저에게 24년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감정이 갈마드는(변갈아드는) 해가 아니었다 싶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막상 전역하니 주체가 안 될 정도의 기쁨이 오갔고, 여러 일들을 하며 25년에 대한 긴장과 설렘으로 고통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각자마다 다른 희로애락이 있었겠지만 잠시나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24년을 위로해보고 인사를 해 본다”고 썼다.

제이홉은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새해 첫 발걸음을 응원해 본다”며 “힘내세요 ‘아미’ (팬덤명), 사랑해요 ‘아미’”라고 팬들에게 인사도 건넸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